

CTS기독교TV·주다산교회 <교육선교 동역 협약식>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와 주다산교회(담임 권순웅 목사)가 기독교대한학교 설립을 위해 지난 7월 22일(수) 주다산교회에서 '교육선교 동역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서 권순웅 목사는 "다음세대 교육은 단순히 교육적 측면을 뛰어넘어 선교의 일환"이라며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적 접근 전략이 필요한 시대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독교대한학교를 세우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김경철 회장은 "CTS는 다음세대를 세우는데 선도적인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다산교회에 기독교대한학교를 세우는데 CTS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 말했다.

협약 이후, 내년 3월 기독교대한학교 교교를 목표로 하는 주다산교회는 CTS다음세대지원센터에서 학교



설립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CTS다음세대지원센터는 학생 모집과 우수 교사 지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도우며 교회에서 대한 학교를 설립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성폭력범 잡은 의인' 싱어송라이터 에이톤, 장기기증 서약

"생명을 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

(예)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이하 본부)는 지난 7월 15일(수) 오후 2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싱어송라이터 에이톤 씨의 장기기증 서약 및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이톤은 지난 2019년 12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외국인 남성을 업어치기로 제압하고 경찰에 인도를 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후 '2019년을 빛낸 의인'에 선정돼 2020년 새해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해운이 산행을 함께하는 등의 행보가 화제를 모았다. 성폭력범을 잡으며 한 여성을 구한 에이톤이 이번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 섰다.

7월 15일, 오후 2시 본부 사무실에서 싱어송라이터 에이톤 씨는 사후 각 장기기증과 뇌사 시 장기기증을 약속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에이톤 씨는 "아렸을 때부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누는 부모님을 지켜보며 지라왔다"며 "부모님의 영향으로 나누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나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번 장기기증 희망등록 참여 계기를 말하면서는 "평소 제 인생 모두가 '알만 보고 간다.'여서, 제가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 바로 해야만 한다"며 "장기기증 서약도 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후 재능나눔을 통해 장기기증 홍보활동에 앞장 서고 싶다는 에이톤 씨는 이날, 사람의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앞으로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통해 생명을 살린 분들을 기억하고,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로하는 홍보대사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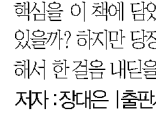
한편, 에이톤은 2017년 발표된 길구봉구 히트곡 '이별'을 작사, 작곡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백지영, 세븐틴 도겸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다. 최근 카카오톡 산하 프로듀서 레이블 플렉스 엠과 전속계약 체결해 앞으로 다양한 방송활동과 음반활동을 통해 대중들을 만날 예정이다.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택 이사장은 "코로나 19 속에서도 희망의 소식을 들려준 에이톤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뛰어난 재능으로 생명의 나눔을 주도하고 계시는 에이톤 씨에게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홍보팀 02-363-3992

신간 안내

크리스천 엄마의 독서 수업



저자는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인공지능의 근본이 '트리비움의 힘'에 있다고 말한다. 트리비움이란 '수용-생각-표현'을 뜻하는 라틴어로,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능력이며,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이 반드시 회복하고 키워야 할 능력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목사로서 20여 년간, 기독교교육현장에서 사역해 온 저자는 부모와 자녀들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던 독서법과 독서지도법의 핵심을 이 책에 담았다. 독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자녀에게 독서를 가르치고 싶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당장, 엄마 자신부터도 쉽게 열아보지 못하는 책장. 이제 『크리스천 엄마의 독서 수업』을 통해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자상하고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 가능한 지침을 담았다.

저자 : 장대은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 발행일 : 2020-07-20 | (145*210)mm 296p | 판매가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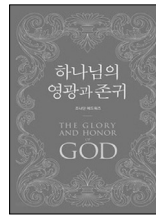
가장 작은 자를 위한 약속



'칠드런 액트, 가버나움, 우리들, 헬프, 보호와 녹아웃, 크리스, 스포트라이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줄무늬 피자'를 읽은 소년, 우리집, 폴란드로 간 아이들, 메이지가 알고 있었던 일. 책 속에 등장하는 12편의 영화들을 통해 저자는 독자들을 무장해제 시킨다. 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함께 꿈꾸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풀어내는 두 저자의 목소리는 거창하거나 유난스럽지 않다. 50년 차 NGO 활동가인 저자가 '보호'라는 이름을 들고 여자라고 착각했다가 민망해지는 장면은 내 안의 인권감수성을 점검하게 한다. 두 저자는 누가 맞고 틀리거나 아닌,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 책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보고 느낌을 이야기한다.

저자 : 김인숙, 이선영 | 출판사 : 국민북스 | 발행일 : 2020-07-27 | (140*200)mm 152p | 판매가 : 11,000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이 책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미출간 설교 원고 20편을 담았다. 미국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지, 그것이 인간의 죄를 강조하는 설교이자 복음적 메시지이며 극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설교였는지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로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기쁨의 신학자 존 파이퍼는 "에드워즈의 모든 저술의 거대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까지 에드워즈에게서 배운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압도되어 오늘 우리의 부흥을 갈망하며 준비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역자 : 조나단 에드워즈, 편집자: 마이클 D. 맥켈렌/오광만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0-07-27 | (150*225)mm 512p | 판매가 : 25,000원

맞다, 맞아! 성경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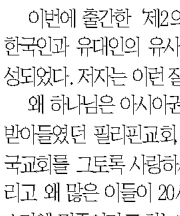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이다.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다 하더라도 내 것으로 받아 드리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지도를 갖고 보물을 하나하나 찾아 가다보면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믿음의 반석위에 올라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인물을 찾아보고, 지명을 찾고, 물건을 찾고, 숫자와 단어를 찾아보는 방법을 통하여 숨겨진 보물을 찾고,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 줄을 그어가면서 "맞다, 맞아! 그 말씀이야"라고 외치고 싶도록 하고 싶다. 조금씩 성경에 손때를 묻히며, 말씀을 찾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맞춤형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감이 나타난다.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 성경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저자가

저자 : 정춘석 | 출판사 : 종리가지 | 발행일 : 2020-07-22 | (152*224)mm 224p | 판매가 : 13,000원

화제의 신간

한국인과 유대인의 유사점 107가지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국인



이런에 출간한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국인' (부제: 한국인과 유대인의 유사점 107가지)은 전 7장으로 구성되었다.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해왔다. 왜 하나님은 아시아권 중에서 한국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던 필리핀교회, 중국교회 및 일본교회보다 한국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왜 많은 이들이 20세기부터 한국 민족을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 교회성장학적 측면에서 교회가 급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 영적 이스라엘 백성(갈 3:6-9)이 많아졌기 때문이고, 둘째, 사역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2가지는 역사적으로 유럽교회, 영국교회 및 미국과 캐나다교회도 매우 많이 했다.

그렇다면 2가지 증거 이외에 다른 증거들, 즉 상관관계 측면에서 한국 민족과 유대 민족과의 유사점은 없는가? 왜냐하면 한국인을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칭하려면 한국인과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이 이야기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본사에서 한국과 한국인과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유사점들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했다. 그 결과 1) 지리와 역사적 측면에서 17가지, 2) 가족의 가치와 제도 측면에서 35가지, 3) 교육과 문화의 측면에서 16가지, 4) 종교적 측면에서 16가지 그리고 5) 경제발전 측면에서 23가지 등 총 107가지의 유사점을 발견했다. 특이한 점은 유사점들 대부분이 오직 한국과

저자 : 현웅수
발행처 : 도서출판 새마
발행일 : 2020년 7월 18일
쪽 수 : 426쪽
판 형 : 신국판
가 격 : 25,000원
문 의 : 도서출판 새마 02-3662-6667
Email : shema@naver.com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8일(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문】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여러번 발의가 되었지만 무산되었다. 그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점이 없다는 반응인 것이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처럼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또 다시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국민 대다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악법이다.

첫째 차별금지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는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하지만 헌법 제36조 1항에 곧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헌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안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고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잘못된 법안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가장 우려가 되는 차별금지법 제2조 4항, 제3조 1항 1, 3, 4항에 보면 '성적지향' 항목이 나온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룰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 관계를 맺거나 갖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는 반사회적이며 건전한 성윤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동성애를 비롯한 다자성에, 근친상간, 수간 등 가정 윤리와 도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법이며, 이를 반대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악법이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것은 성 인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으로 자신이 성을 인지하는 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약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 인지 교육을 각 지자체별로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공무원들과 국가기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성 인지교육을 받게 되면 자신의 성별을 의심하면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큰 피해는 여성들과 어린이들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넷째 차별금지법 제3조 3항, 4항, 5항에 의하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정하는 광고 행위",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주권, 사생활, 직업, 양심, 종교, 언론, 집회, 예술 등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이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내용과 상충되며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제32조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면서 잘못된 성행위(동성교, 구강교 등)를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가르치게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쉽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 치료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100%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에 빠지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함으로 보건적 피해를 모르는 동성애자들은 계속 동성애에 빠지고 에이즈환자는 늘어난다. 이것은 2020년 7월 8일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광역시보수교단총연합회, 인천광역시조찬기도회, 인천광역시아미나기도회, 인천법시민연합회, 시민법민무지개, 올버니성문화보호모임, 양성평등국민위원회, 올버니인권센터가, 올버니가치시민연합, 건전한사회를위한목회자연합회 60여개 시민단체 일동

또한 기존 탈 동성애단체들이 탈 동성애를 돕고 싶어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는 악법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우리 사회는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반윤리적인 성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외에도 차별금지법 제32조에는 동성애자에게 특권을 주고, 일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또한 제2, 4, 49 조에는 동성애 등을 강력히 옹호 조정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기관화 하는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 도덕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차별금지법의 잘못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장애, 나이,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20개 가까이 제정되어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1948년 7월 12일 개정된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시조찬기도회, 인천시아미나기도회, 인천시보수교단연합회를 비롯한 60여개의 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7월 8일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광역시보수교단총연합회, 인천광역시조찬기도회, 인천광역시아미나기도회, 인천법시민연합회, 시민법민무지개, 올버니성문화보호모임, 양성평등국민위원회, 올버니인권센터가, 올버니가치시민연합, 건전한사회를위한목회자연합회 60여개 시민단체 일동